



어린이 영어연극 '그림자 도둑(Shadow Thief)'

영어 배우고 연극도 보고

영어연극 '그림자 도둑' 28~30일 광산문화회관

'영어도 배우고, 연극도 관람하고'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영어연극 '그림자 도둑(Shadow Thief)'이 28~30일(오후 2시·5시)까지 광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지난 6월 호주 퀸즐랜드 공연예술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어린이 공연축제인 '아웃 오브 더 박스 페스티벌'에 초청돼 관심을 모았던 '그림자 도둑'은 주인공 소녀 에나가 자신이 잃어버린 그림자를 찾아 나서는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그림자 도둑'은 '그림자'라는 친근하면서 흥미로운 소재를 첨단 영상기술을 통해 무대에서 재현해 냈으며 공연 중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생생한 라이브 음악을 들려준다.

공연은 자막 없이 영어로 진행되며 중간중간 극의 흐름을 짚어주는 한국어 설명을 곁들여 어린이들을 이해를 돕는다. 폴 매튜스·레이철 맥나마라를 비롯, 박영희·이현실 등 한국 배우가 함께 출연한다.

36개월 이상 유아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2만원. 문의 02-560-099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대 미술대학총동문회 작품 공모

조선대학교 미술관이 '미술대학총동문회-걸어온 길 60년, 세대를 넘어 미래로' 특별전을 위해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전시는 미술대학 개설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며 참가를 희망하는 작가들은 오는 28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화예연구실에 출품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9월 18일부터 열리는 전시 1부에서는 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각 등 미술학부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며, 2부 전시(10월 7일)에는 디자인 학부 출신 작가들이 참여한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은 지난 1946년 조선대 개교와 동시에 문을 연 뒤 현재까지 2천여명의 미술인을 배출한 작가들의 산실이다. 문의 062-230-789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대수



이적



스윗 소로우



집시풍으로 되살아난 '임을 위한 행진곡'

70~80년대 민중가요 현대감각 리메이크 음반 '아가미' 화제 한대수·이적·스윗 소로우 등 참여... 음반사이트 톱 10 진입

서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음반·도시 판매 사이트인 알라딘(www.aladin.co.kr)의 판매 순위를 살펴보면 음반이 출시된 6월 4째 주 4위로 데뷔한 뒤 7월 4째 주인 현재까지 10위권 내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SG워너비, 버즈, 백지영 등 톱 스타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요즘의 음반시장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음반의 면면을 뜯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전후적이고 처절한 '민중가요'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음반에 참여한 가수들의 개성이 그대로 담긴 전혀 새로운 노래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드라마 '연애시대'의 배경음악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룹 스윗 소로우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의 '사랑 노래'를 세련된 아카펠라로 재구성했다. 윈디 시티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을 레게 스타일의 곡으로 바꾸어냈다.

원래의 젊음의 분위기보다는 몽환적이면서 이국적인 느낌이 강하다. 도저히 '민중 가요'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지만 원곡이 가지고 있는 가사나 정서, 메시지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

윈디 시티 멤버 김반장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밝은 것은 없다"면서 "레게 음악이야말로 신과 자신의 영상, 그리고 자유와 해방에 대한 갈망으로 계속 발전해온 음악"이라고 설명했다.

70~80년대 민중가요 현대감각 리메이크 음반 '아가미' 화제 한대수·이적·스윗 소로우 등 참여... 음반사이트 톱 10 진입

70~80년대 민중가요 현대감각 리메이크 음반 '아가미' 화제 한대수·이적·스윗 소로우 등 참여... 음반사이트 톱 10 진입

70~80년대 민중가요 현대감각 리메이크 음반 '아가미' 화제 한대수·이적·스윗 소로우 등 참여... 음반사이트 톱 10 진입

70~80년대 민중가요 현대감각 리메이크 음반 '아가미' 화제 한대수·이적·스윗 소로우 등 참여... 음반사이트 톱 10 진입

70~80년대 민중가요 현대감각 리메이크 음반 '아가미' 화제 한대수·이적·스윗 소로우 등 참여... 음반사이트 톱 10 진입

호남 의병·우국지사 열 되새긴다

'악무호남(若無湖南)'展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나인갤러리

국난극복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면서 의향(義鄕)의 전통을 세운 호남지역 의병과 우국지사의 열을 되새기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나인갤러리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미술로 만나는 '악무호남(若無湖南)'전을 연다. 이 전시에는 광주와 전·남북 작가 27명이 참여해 왜구들의 침략과 불의에 정면으로 맞섰던 선열들의 희생 정신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 독립운동, 3·1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역사의 한복판에서 고뇌했던 의병·지사들의 모습과 전투 현장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특히 고정명 장군, 김덕령 장군 등 영적으로만 그려졌던 우국지사들의 면모가 현대적 해석으로 화면에 담겼다.

여기에도 역사적 현장을 살리기 위해 각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그 지역 출신 작가들이 직접 제작했다. 조선왕조실록을 전란에서 구한 '전주 내장산 보존사건'은 전주 작가 조병철씨가 제작했으며, 최은소 독립운동가인 주제연 선생은 여수 출신 이민하씨가 붓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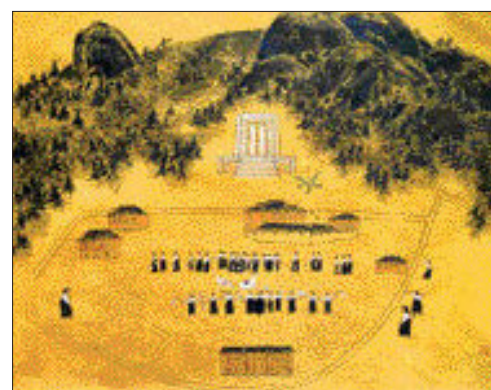
목포의 4·8 만세운동과 신안 암태도 소작쟁의 사건은 목포 출신 정태관, 김호원씨가 화폭에 담았다. 참여작가는 조근호, 고근호, 박수만, 조윤성, 허진, 최은태, 김홍곤씨 등이며, 서양화, 한국화, 조각, 설치, 영상, 서예 등 미술 전 부문에 걸쳐 작품을 선보인다.

순회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나인갤러리 전시회에 이어 광주 5·18기념박물관(8월10일~24일), 목포 자연사박물관 전시실(8월29일~9월7일)에서도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조근호 작 '충정공을 기다리다'



정태관 작 '목포 4·8만세운동과 봉안진'

천혜선씨 가야금 독주회

20일 광주 빛고를 국악전수관

가야금 연주자 천혜선씨가 20일 오후 7시 광주 빛고를 국악전수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천씨는 이번 연주회에 가야금의 짜임새가 치밀하고 구성미가 돋보이는 최옥류 가야금 산조와 25현 가야금 2중주곡 '옛노래', 황병기와 박범훈씨가 작곡한 '춘설'과 '새산조'를 들려준다.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천씨는 현재 충남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으로 재직중이다.

장구와 25현가야금은 충남국악관현악단에 재직중인 이영선, 이승미 씨가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Eulji Gongin Jeonggasa' with contact info T.019-616-2353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lga Gongin Jeonggasa' with contact info 024-8216-1111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C Tower (주)' with contact info 02-8772-8004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unda Gongin Jeonggasa' with contact info 062-371-1900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21st Century Real Estate Construction (주)' with contact info 525-0021 and property list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in Dong Sam Il Budeung San' with contact info 229-1140 and property listings.